

痰瘀症의 概念, 病理 및 治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正會, 金聖勳, 林樂哲*

I. 緒 論

痰은 臟腑의 氣血失調로 인하여 水濕津液이 凝聚한 病理的 產物이며¹⁴⁾, 瘀血은 體內의 一定部位에 血液이 瘀滯되거나 汚穢不潔 및 經脈을 離脫한 血液³⁾으로 痰과 瘀血은 不同한 病理的 產物인 同時에 致病因素가 되는데 痰瘀症은 痰飲과 瘀血이 서로 挾雜하여 여러가지 病證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¹²⁾

痰瘀病理에 關하여 《靈樞 邪客》¹⁾에서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라 하여 津血이 同源이며 津液이 轉化하면 血이 된다고 最初로 言及된 以來, 李⁸⁾는 津血은 瘀를 이루고 津液은 痰으로 化할 수 있다고 하여 痰瘀가 同病이라고 具體化하였고, 章¹²⁾은 痰과 瘀는 그 根源이 같다고 하였으며, 唐²⁾은 瘀血이 오래되면 痰을 誘發한다 하여 瘀血이 痰의 誘因이 됨을 言及하였고, 侯¹⁴⁾은 痰이 形成된 후에 氣를 따라 血이 臟腑, 經脈으로 流行하는데 痰의 粘滯한 性質로 인하여 氣血運行에 影響을 주어 瘀血을 發生한다고 하여 痰이 瘀血의 誘因이 됨을 示唆하였다.

痰瘀症에 關하여 朱¹³⁾는 “肺脹而咳 或左或右 不得眠 此痰挾瘀血”이라고 하여 痰과 瘀血이 挾雜하여 肺脹이 發生될 수 있음이 最初로 言及된 以來, 現今에도 臨床에 있어 腦疾患³⁰⁾, 老人 冠心病²¹⁾, 心臟病²⁷⁾ 등의 疾患이 痰瘀挾雜으로 인하여 誘發되는 疾患임이 報告된 바 있는데 痰瘀挾雜으로 인한 疾患의 治療法으로 祛瘀化痰하는 治法이 자주 活用되고 있다.^{15, 17, 23, 35)}

이와 같이 痰瘀症의 治療에 關한 臨床活用在 많음에도 불구하고 痰瘀症의 概念, 病理 및 治法에 關하여는 아직도 명확히 정리된 文獻이 많지 않다.

이에 著者는 痰瘀症의 概念, 病症 및 治法을 보다 명확히 밝혀 韓方臨床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歷代文獻에서 痰瘀症의 概念, 病症 및 治法에 關한 內容을 綜合的으로 考察하였던 바 얻은 바가 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痰瘀病理에 關한 歷代醫家說

○ 黃帝內經¹⁾

〈 靈樞 邪客 〉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靈樞 百病始生〉

若內傷於憂怒 則氣上逆, 氣上逆則六輸不通, 溫氣不行, 癡血蘊裏而不散, 津液澁滲, 着而不去, 而積皆成矣.

○ 金匱要略¹¹⁾

〈胸痺心痛短氣病脈證治〉

胸痺之病, 喘息咳唾, 胸背痛, 短氣, 寸口脈沈而遲, 關上小緊數, 瓜蒌薤白白酒湯主之. 胸痺不得臥, 心痛徹背者, 瓜蒌薤白半夏湯主之.

○ 丹溪心法¹³⁾

肺脹而咳, 或左或右, 不得眠, 此痰挾瘀血, 碍氣而病. 痰挾瘀血, 遂成窠囊.

○ 醫學入門⁸⁾

痰乃津血所成.

○ 張氏醫通¹⁰⁾

痰挾死血, 隨氣攻注, 流走刺痛.

○ 證治匯補⁶⁾

噎膈之症, 飲食不下, 心胃作痛, 此痰癡血瘀. 胃脘之血, 爲痰濁所滯, 日積月累, 漸成噎膈反胃.

○ 血證論²⁾

血積既久 亦能化爲痰水.

○ 臨證指南醫案³¹⁾

痰瘀自下.

○ 繼志堂醫案¹⁵⁾

胸痛徹背 是名胸痺……此病不惟痰濁, 且有瘀血交阻膈間.

○ 雜病源流犀燭³¹⁾

食痰, 飲食不消, 或挾瘀血, 遂成窠囊, 以致痞滿不通. 痰血癡聚, ……宜紫芝丸.

○ 類證治裁⁹⁾

痰挾死血攻注.

○ 醫宗必讀⁷⁾

脾土虛弱, 清者難升, 濁者難降, 留中滯膈, 淤而成痰.

○ 醫林改錯⁴⁾

癩狂夢醒湯: 癩狂一症 哭笑不休 買罵歌唱 不避親疏 許多惡態 乃氣血癡滯 腦氣與臟腑氣不接 如同作夢一樣

○ 血瘀證的診斷和治療⁵⁾

痰阻瘀結證. 本證可見于頸淋巴結結核, 慢性頸淋巴結炎(瘰癧, 痰核), 甲狀腺腫瘤等.

2. 痰瘀病理와 關聯된 現代臨床

○ 應志華³⁰⁾

腦梗塞, 病毒性腦炎, 腦震蕩의 疾患에서 痰瘀雙關의 理論下에 石菖蒲, 遠志, 天竺黃, 南星, 半夏, 茯苓, 澤瀉, 丹參, 桃仁, 水蛭, 牛膝로 構成된 化痰祛瘀湯으로 治療.

○ 方顯明²¹⁾

“人到垂暮之年, 臟氣漸衰, 氣化功能減退失調, 易致氣血津液不足, 營運不暢, 而生痰濁, 瘀血之變”이라 하여 老年 冠心病에 있어 補法과 兼하여 化痰通瘀法을

- 用.
- 袁寶庭²⁷⁾
半夏, 枳實, 茯苓, 桃仁, 丹蔘, 黨蔘, 麥門冬, 五味子로 構成된 痰瘀同治方으로 心臟病을 治療
 - 李浩然³²⁾
久病入絡하면 津液이 留結하여 痰이 되고 痰瘀가 서로 結合하면 遍平疣, 汗孔角化症, 血管角化症, 局限型硬皮病 등의 疾患이 나타나는데 通絡化痰法과 軟堅化痰法을 用한다.
 - 劉心德²⁸⁾
痰은 津液이 化한 것으로 氣를 따라 升降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萬若 痰濁으로 經絡을 滯하면 血의 運行이 不暢하여져 瘀血을 形成하며, 反對로 血瘀阻絡하면 津液의 흐름을 어렵게 하여 痰濁이 된다. 張錫純은 難治病의 多數가 痰瘀로 인한다 하여 活血化痰藥에 治痰藥을 配合하여 用하였다.
 - 蒲永海³⁹⁾
氣血은 互根이고 痰瘀는 同源으로 痰瘀는 內傷病證中에서 모두 同等한 地位에 있다. 痰阻하면 血이 難行하고 血凝하면 痰이 難化하니 治療에는 반드시 治血해야 血이 活하여 痰이 化하고, 治血(瘀)에는 반드시 治痰해야 痰이 化하여 血이 쉽게 行한다 하여 頭部損傷, 胸脇損傷, 腹部損傷 등의 疾患에서 活血化痰시키는 治法을 用하였다.
 - 周克振³⁷⁾
痰瘀로 인한 冠心病에 溫陽化痰, 活血祛瘀法을, 風濕性關節炎에 化痰祛瘀通絡法을, 子宮外妊娠에 化痰行瘀散結法을, 中風에 益氣活血, 化痰通絡法을, 失眠에 化痰祛瘀, 養心安神法을 用했다.
 - 牟旭彪²⁰⁾
痰이 體內에 머물면 氣를 따라 升降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肺에 貯하거나 或은 胃에 停하거나 或은 心竅를 蒙蔽하거나 肝膽을 搖動시켜 여러 病證을 惹起한다. 痰濁이 經絡을 流竄하여 經遂를 阻塞하면 氣血流通을 阻礙하여 瘀血을 生하므로 痰瘀互結하게 된다 하여 冠狀動脈硬化粥狀硬化性 心臟病을 治療하였다.
 - 馬大正¹⁹⁾
經, 産으로 耗血傷血하여 瘀血內着하면 經脈을 閉阻하여 津液이 正常的으로 敷布하지 못하여 쉽게 痰을 이룬다. ……痰瘀內結하여 衝任이 損傷되면 崩漏를 發한다.
 - 周彩章³⁸⁾
舌蹇症에서 多飲瘀血의 宿疾로 痰瘀內阻하면 鬱而化熱하여 風痰이 되어 阻絡한다.
 - 張德仁³⁴⁾
溫病後期에 虛煩嘔惡, 驚悸不寐, 或身重肢木, 脇痛納呆, 口淡粘膩者는 痰瘀로 인한 證이니 滌痰行瘀通絡法을 用한다.
 - 沈萬生²⁵⁾
平素에 飲食不節하고 情志가 失調하면 陰陽이 失常하고 津血代謝가 紊亂하여져서 漸次로 津은 痰이 되고 血은 瘀가 되어 痰瘀가 互結하여 阻滯脈絡한

다. 中風初期에 神志障礙, 失語, 偏癱 등의 證은 風痰瘀血등이 脈絡을 痺阻한 것이니 滌痰祛瘀, 通腑泄濁한다.

○ 程運文³⁶⁾

痰瘀互結하여 中脘에 阻滯하면 氣가 上逆하여 惡阻가 되며, 胃脘刺痛과 妊娠二三月에 惡心嘔吐, 痰涎挾血絲, 晨時尤甚, 頭痛眩暈, 胃脘脹痛或刺痛拒按, 大便色暗, 舌質暗紅或邊有瘀斑, 苔白膩或黃膩, 脈濡滑或滑數한다.

○ 邱模炎¹⁵⁾

慢性活動性 B 型肝炎과 頑固한 慢性肝炎은 痰瘀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 化痰祛瘀法을 用한다.

○ 王襲祚 外²⁶⁾

急性淋巴炎, 甲狀腺炎, 急性動脈炎 등을 包括하는 頸部急性炎症初期로 局部에 腫塊가 있는 者는 活血化痰, 疏風化痰清熱法을 用하고, 甲狀腺瘤, 頸部慢性淋巴結腫塊, 腮腺瘤 등에는 活血化痰, 軟堅化痰法을 用하며, 骨 및 關節結核, 寒性膿瘍初期, 脈管炎初期에는 活血化痰, 溫陽化痰法을 用한다.

○ 謝海洲²³⁾

負重勞傷으로 肺絡受損하면 血溢脈外하여 肺에 阻滯하고 血瘀하면 氣滯하여 肺失宣降하여 氣壅하면 咳嗽, 胸悶을 發하며, 瘀血이 內阻하여 不通하므로 痛한 故로 胸部에 隱痛이 있다. 日久하면 邪瘀가 熱로 化하여 煉液하므로 痰을 이루므로 咳吐黃痰或黑痰하니 清熱祛痰化痰法을 爲主로 한다.

○ 董漢良¹⁸⁾

疝證은 氣血이 虛弱하고 津液이 枯涸한 證이다. 津과 血은 同源인데 津液이 留滯하면 痰을 이루고 痰滯하여 氣阻하면 血瘀가 된다.

○ 劉春堂 外²⁹⁾

高血脂症多由 飲食偏嗜, 過食甘肥所致, 或系患者痰濕之體, 易于脾失健運, 而使水穀之精微無以輸布, 內聚而成濕濁粘痰之物, 積滯內壅; 或由久病陰虛, 內生火熱, 煉津爲痰, 痰濁既成, 注于血脈阻塞脈絡, 終成痰瘀爲患. 故高血脂症從痰瘀論治.

○ 葉益豐²⁴⁾

頭部損傷後 0.5 x 0.8ml의 腦腫瘤로 頭痛時輕時重, 噴射性嘔吐, 右眼失明, 左眼視力 0.1, 形瘦面黃, 神倦乏力, 口乾, 舌淡苔白膩, 脈緩細澀한 患者를 痰瘀交阻癥結로 腫瘤가 된 것으로 診斷하여 化痰消痰, 軟堅散結하는 治法을 用하여 治療하였다.

○ 張覺人³³⁾

老年腦血管性痴呆는 痰阻血瘀腦竅한 경우가 많으므로 滌痰開竅, 化痰通絡하는 治法을 用했다.

○ 杜昌華¹⁷⁾

滑囊炎은 滑囊이 長期間 反復的으로 摩擦되거나 壓力으로 인한 慢性損傷인데 患部疼痛, 腫脹이 있어 肢體活動에 影響을 준다. 現代醫學으로 治療가 어려운 경우 健脾祛痰化痰法을 用하여 治療하였다.

○ 憑西勇²²⁾

不孕症은 痰瘀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清熱化痰, 活血化痰法으로 蒼附導痰湯合桂枝茯苓丸에 加減하여 治療한 결과 有效하였다.

○ 鄭國珍³⁵⁾

痺證에 있어 痰瘀互結한 경우는 久痺不愈에 많다. 그 症狀은 患處가 漫腫하

고 按하면 木硬하며 局部的 肌膚가 麻木하거나 或은 沈重, 水冷, 鬱脹하며 痛處는 比較的 固定的이고 刺痛이나 酸脹疼痛, 舌質暗紫或微青, 或有瘀点瘀斑, 苔膩, 脈弦滑或沈澁한다. 이런 痺證에 化痰祛瘀法을 用하여 有效하였다.

○ 邱美和¹⁶⁾

痰瘀同源은 津과 血이 同源이라는 概念에서 始作하는데 津이 蒸하면 痰이 되고 血이 滯하면 瘀이 된다고 하였고, 痰濁은 臟腑機能失調로 氣血, 津液, 水濕의 運行에 障礙를 주어 形成하고 瘀血은 臟腑經脈機能의 紊亂으로 血液運行에 障礙를 주어 脈外로 넘쳐흐르거나 體內에 停滯한 病理的 産物이라고 하면서 痰瘀는 肺, 心, 肝 및 氣血과 關聯이 있다고 하였다. 肺는 主氣司呼吸, 主宣發肅降, 通調水道하여 人體의 水津과 氣血運行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로 主血脈, 推動血液하여 脈道中을 運行케 하며, 肝은 升發하는 性質이 있으며 主疏泄, 體陰而用陽으로 全身의 氣機와 精神情志活動을 調暢하며 血液과 津液을 推動하는 重要한 臟器이다. 氣는 血의 帥이고 血은 氣의 母이며 氣는 能히 行血하고 血은 能히 載氣하는데 氣病은 生痰瘀하고 血病도 生痰瘀할 수 있다. 따라서 治痰에는 活血하고 活血하면 痰化하니 氣血이 調和하면 痰瘀가 스스로 消한다.

< 圖表 1. 痰瘀病理에 關한 歷代醫家說 >

文 獻	內 容
黃 帝 內 經	<靈樞 邪客>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靈樞 百病始生> 若內傷于憂怒, 則氣上逆, 氣上逆則六輸不通, 溫氣不行, 凝血蘊裏而不散, 津液澁滲, 着而不去, 而積皆成矣.
丹 溪 心 法	痰挾瘀血, 遂成裏囊
醫 學 入 門	痰乃津血所成
張 氏 醫 通	痰挾死血, 隨氣攻注, 流走刺痛
血 證 論	血積既久 亦能化爲痰水
繼志堂醫案	胸痺……此病不惟痰濁, 且有瘀血交阻膈間
臨證指南醫案	痰瘀自下
醫 宗 必 讀	脾土虛弱, 清者難升, 託者難降, 留中滯膈, 瘀而成痰.

< 圖表 2. 痰瘀病理와 關聯된 現代臨床家說 >

醫 家	疾 患 및 見 解
方 顯 明	老年이 되면 臟氣가 漸次 衰하여지고 氣化機能도 減退하거나 失調하여 氣血津液不足이 쉽게 惹起되어 痰濁 瘀血이 生한다.
劉 心 德	痰濁이 經絡에 滯하면 血의 運行이 不暢하여져 瘀血이 生成되며 血瘀阻絡하면 津液이 難行하여 痰濁이 된다.
蒲 永 海	痰阻하면 血이 難行하고 血凝하면 痰이 難化하니 治痰에 는 반드시 治血하고 治血(瘀)에는 반드시 治痰한다.
牟 旭 彪	痰濁이 經絡을 流滯하여 經逐을 阻塞하면 氣血流通을 阻礙하여 瘀血이 生하므로 痰瘀互結한다.
馬 大 正	經産으로 耗血傷血하여 瘀血內着하면 經脈을 閉阻하여 津液이 正常的으로 敷布하지 못하여 쉽게 痰을 만든다.
沈 萬 生	津血代謝가 紊亂하면 津은 痰이 되고 血은 瘀가 되어 痰瘀互結하면 阻滯脈絡한다.
謝 海 洲	邪瘀가 日久하면 熱로 化하여 煉液하여 痰을 形成한다.
董 漢 良	津血은 同源으로 津液이 留滯하면 痰을 이루고 痰滯하여 氣阻하면 血瘀가 된다.

< 圖表 3. 痰瘀症의 治療에 關한 治方 >

文獻 및 醫家	治 方	文獻 및 醫家	治
金匱要略	瓜蒌薤白酒湯 瓜蒌薤白半夏湯	章 眞 如	瓜蒌薤白半夏湯 合 溫膽湯 血府逐瘀湯 合 失笑散
張氏醫通	浚血丸		
類證治裁	控涎丹 加 薤菜, 桃仁, 穿山甲	應 志 華	化痰祛瘀湯
太平惠民	小活絡丹	袁 寶 庭	痰瘀同治方

和劑局方		憑西勇	蒼附導痰湯合 桂枝茯苓丸
醫林改錯	癩狂夢醒湯		

Ⅲ. 考 察

痰은 體內組織의 病理過程中에 나타나는 非正常的인 體液으로 그 來源은 水穀津液이 化한 것이며, 痰이 形成된 후에는 氣를 따라 升降하면서 全身에 이르러 여러가지 病理 變化를 나타낸다.¹²⁾

瘀血은 體內的 一定部位에 血液이 瘀滯되거나 汚穢不潔 및 經脈을 離脫한 血液³⁾으로 外傷, 出血, 氣虛, 氣滯 등에 의한 病理結果이며 여러가지 疾病을 誘發하는 要因이 된다.¹²⁾

痰瘀病理에 關한 歷代醫家說을 살펴보면 《黃帝內經》〈靈樞 邪客篇¹⁾에서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라 하여 津液이 血로 化할 수 있다고 하면서 津과 血이 同源임을 最初로 言及한 以來, 李⁸⁾는 痰은 津과 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唐²⁾은 血積이 오래되면 痰水로 化할 수 있다 하였으며, 李⁷⁾는 脾土가 虛弱하면 瘀血과 痰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最近에 方²¹⁾은 老年이 되면 臟氣가 漸次 衰하여지고 氣化機能이 失調하여 氣血津液 不足을 惹起하여 痰濁과 瘀血을 이룬다고 하였고, 李³²⁾는 久病이 入絡하여 津液이 留結하여 痰이 되며 여기에 瘀血이 서로 結合한다고 하였으며, 劉²⁸⁾는 痰濁은 瘀血을 誘發하고 瘀血은 痰濁을 誘發한다고 하였다. 蒲³³⁾는 氣血의 根源이 서로 같으니 痰과 瘀의 根源이 서로 같다고 하면서 痰阻하면 血이 難行하고 血凝하면 痰이 難化한다고 하였으며, 牟²⁰⁾는 痰濁이 經絡을 阻塞하면 氣血流通에 障礙를 주어 瘀血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馬¹⁹⁾는 瘀血이 經脈을 閉阻하면 痰濁을 이룬다고 하였다. 沈²⁵⁾은 平素의 飲食 不節과 情志失調로 陰陽이 失常하고 津血代謝가 紊亂하면 津은痰이 되고 血은 瘀가 된다고 하였고, 董¹⁸⁾은 津과 血이 同源인데 津液이 留滯하면 痰이 되고 痰滯하여 氣阻하면 血瘀가 된다고 하였으며, 邱¹⁶⁾는 津과 血이 同源이므로 津熬하면 痰이 되고 血滯하면 瘀가 된다고 하면서 痰濁은 臟腑機能失調로 氣血, 津液, 水濕의 運行에 障礙를 주어 發生하고 瘀血은 臟腑經脈機能의 紊亂으로 血液運行에 障礙를 주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以上の 痰瘀病理에 關한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痰瘀病理의 理論은 《黃帝內經》에서 津과 血의 根源이 같다고 한 津血同源이 痰瘀病理에 關한 最初의 言及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痰의 根源은 津液에 있고 瘀血의 根源은 血이라는 점에서 妥當할 것 같다. 痰瘀症의 原因에 있어 李仲梓는 脾土虛弱을, 方顯明은 氣血津液不足을, 李浩然은 久病入絡을, 沈萬生은 飲食不節과 情志失調를 言及하였는데 이러한 病因들은 邱美和가 言及한 臟腑機能失調로 인하여 氣化機能이 失調하면 津血代謝의 障礙를 誘發하여 痰瘀症이 發生한다는 見解로 要約할 수 있으며, 李梴, 唐容川, 馬大正, 牟旭彪, 劉心德 등은 痰과 瘀血은 相互轉化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痰은 瘀血을 誘發할 수 있으며 反對로 瘀血은 痰을 生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痰과 瘀血은 臟腑機能失調로 津血代謝가 紊亂하여 發生되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고, 痰은 血瘀를 誘發할 수 있으며 反對로 瘀血은 痰을 生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痰瘀挾雜하여 나타나는 痰瘀症에 對하여 살펴보면 朱¹³⁾가 肺脹門에서 “肺脹而咳, 或左或右, 不得眠, 此痰挾瘀血”이라 하여 痰瘀症을 最初로 言及한 以來, 張⁹⁻¹⁰⁾은 痰挾死血하면 流走刺痛한다고 하였고, 李⁶⁾는 噎膈에 飲食不下하고 心胃疼痛한 것은 痰瘀血瘀라 하였으며, 葉³¹⁾은 痰瘀로 인하여 崩漏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沈³¹⁾은 食痰이나 或은 瘀血을 挾하면 痞滿不通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俞⁵⁾는 頸部淋巴疾患과 慢性頸部淋巴結核 및 甲狀腺腫瘤 등이 痰挾瘀血의 病證이라고 하였다.

現代臨床에서 痰瘀症을 言及한 報告로 應³⁰⁾은 腦梗塞, 病毒性腦炎, 腦震蕩 등의 疾患을, 方²¹⁾은 老年 冠心病을, 袁²⁷⁾은 心臟病을, 李³²⁾는 扁平疣, 汗孔角化症, 血管角化症, 局限型硬皮病 등의 皮膚疾患을, 蒲³⁹⁾는 頭部損傷, 胸脇損傷, 腹部損傷 등의 疾患을, 周³⁷⁾는 冠心病, 風濕性關節炎, 子宮外妊娠, 中風, 失眠을, 牟²⁰⁾는 冠狀動脈硬化粥狀硬化性心臟病을, 馬¹⁹⁾는 崩漏를, 周³⁸⁾는 舌蹇症을, 張³⁴⁾은 溫病後期에 나타나는 虛煩嘔惡, 驚悸不寐, 或身重肢麻, 胸痛納呆, 口淡粘膩한 경우를, 沈²⁵⁾은 中風初期에 나타나는 神志障礙, 失語, 偏癱 등을, 程³⁶⁾은 惡阻와 胃脘刺痛을, 邱¹⁵⁾는 慢性活動性 B型 肝炎과 頑固한 慢性肝炎을, 王²⁶⁾은 急性淋巴炎, 甲狀腺炎, 急性動脈炎 등의 頸部の 急性炎症疾患과 甲狀腺瘤, 頸部慢性淋巴結腫塊, 腮腺瘤 등의 疾患 및 骨關節結核, 寒性膿瘍初期, 脈管炎初期 등을, 謝²³⁾는 咳嗽, 胸悶, 胸部隱痛등을, 董¹⁸⁾은 疝證을, 劉²⁹⁾은 高脂血症을, 葉²⁴⁾은 腦腫瘤를, 張³³⁾은 老年腦血管性痴呆를, 杜¹⁷⁾는 滑囊炎을, 憑²²⁾은 不孕症을, 鄭³⁵⁾은 久痺證을 痰瘀症이라고 하여 治痰하고 活血化痰하는 治方을 應用하였다.

以上の 痰瘀症에 관한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痰瘀症은 肺脹 등의 肺疾患, 冠心病, 心臟病, 冠狀動脈硬化粥狀硬化性 心臟病 등의 心疾患, 肝炎 등의 肝疾患, 頸部淋巴疾患, 甲狀腺疾患, 腦疾患 및 外部損傷으로 인한 疾患 등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痰瘀症은 主로 肺가 主氣, 司呼吸, 宣發肅降, 通調水道하는 機能이 있어 人體의 水津과 氣血運行過程에 있어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心이 血脈을 主하고 推動血液하여 脈道中에 運行케 하는데 津과 血은 同源으로 津은 血로 化하고 血中에 津이 있다는 점에서, 肝이 疏泄을 主하여 全身氣機를 調暢하고 血과 津液을 推動하여 運行하는 臟器라는 점에서 痰瘀症이 肺, 心, 肝疾患과 密接한 關聯이 있을 것이라는 邱美和의 見解가 妥當할 것 같다.

痰瘀症의 治療에 關한 治方에 대하여 살펴보면 張¹¹⁾이 胸痺를 治療하는 治方으로 瓜蒌薤白白酒湯과 瓜蒌薤白半夏湯을 言及한 以來, 張¹⁰⁾은 浚血丸을, 沈³¹⁾은 紫芝丸을, 林⁹⁾은 控涎丹에 薤菜, 桃仁, 穿山甲을 加하여 活用하였고, 唐²⁾은 顛狂夢醒湯을, 章¹²⁾은 瓜蒌薤白半夏湯合溫膽湯과 血府逐瘀湯合失笑散을 活用하였으며, 最近臨床에 있어 活用된 痰瘀同治方으로는 應³⁰⁾의 化痰祛瘀湯, 袁²⁷⁾의 痰瘀同治方, 憑²²⁾의 蒼附導痰湯合桂枝茯苓丸이 있다.

以上の 痰瘀症을 治療하는 治方에 관한 內容을 綜合하여 살펴보면 痰瘀症을 治療하는 處方은 金匱要略에서 溫陽宣痺 化痰行瘀하는 效能이 있는 瓜蒌薤白白酒湯과 瓜蒌薤白半夏湯이 最初로 記載된 以來 여러 醫家들이 痰瘀症의 治療에 關한 處方을 言及하였으나 痰瘀症의 治療에 關한 治方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지는 않았으며 現代臨床에서 活用된 痰瘀同治方의 構成은 行氣하는 藥物과 祛痰化痰하는 藥物에 加減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結 論

痰瘀症의 概念, 病證 및 治法을 보다 명확히 밝혀 韓方臨床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歷代文獻에서 言及된 痰瘀症을 綜合적으로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痰瘀症은 痰과 瘀血이 複合되어 나타나는 病症으로 痰과 瘀血은 相對病因으로 化하는 過程中에서 發生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痰瘀症의 症狀은 主로 肺脹, 噎膈反胃, 崩漏, 痞滿, 胸痛 등이 나타나 있지만 瘀血과 痰飲의 多少에 따라 各病因의 特性症狀이 發顯될 수 있을 것으로 思慮된다.
3. 痰瘀症과 關聯되어 臨床에 應用된 疾患은 腦疾患, 冠心病, 心臟疾患, 皮膚疾患, 外傷性疾患, 中風, 崩漏, 肝疾患, 頸部淋巴疾患, 甲狀腺疾患 및 滑囊炎 등으로 나타났다.
4. 痰瘀症의 治法은 大體로 行氣를 于先으로 하면서 痰飲과 瘀血의 多少에 따라 化痰祛瘀藥을 加減하여 使用해야 될 것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319, 324.
2. 唐容川: 血證論,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84, p. 118.
3.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香港, 尚務印書館, 1981, p. 43.
4. 王清任: 醫林改錯, 臺北, 臺聯風出版社, 1975, p. 66.
5. 俞芝江編: 血瘀證의 診斷和治療, 上海中醫學出版社, 1989, p. 45.
6. 李用粹: 證治匯補, 萬葉出版社, 年度未詳, p. 303.
7. 李仲梓: 醫宗必讀, 臺南, 綜合出版社, 1976, p. 340.
8.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357.
9. 林佩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p. 122.
10. 張璐玉: 張氏醫通, 臺北, 自由出版社, 1964, 卷4, p. 4.
11. 張仲景: 金匱要略, 大邱,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4, pp. 73-74.
12. 章眞如: 風火痰瘀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 11-13.
13. 朱丹溪: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 1986, p. 85, pp. 101-102.
14. 侯天印, 王春華: 痰證論,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1989, p. 1.
15. 邱模炎: 活血化痰治療病毒性肝炎研究進展, 遼寧中醫雜誌, 6: 47-48, 1989.
16. 邱美和: 也論痰瘀同源, 新中醫, 3: 11-13, 1991.
17. 杜昌華: 健脾祛痰化痰治療滑囊炎, 浙江中醫雜誌, 6: 255, 1987.
18. 董漢良: 從痰瘀同治角度探討小兒疳積的治療, 遼寧中醫雜誌, 11: 18-19, 1982.
19. 馬大正: 痰與婦科疾病, 湖北中醫雜誌, 3: 42-45, 1985.
20. 牟旭彪: 瘀血證治舉隅, 浙江中醫學院學報, 4: 24-25, 1987.
21. 方顯明: 益氣化痰通語法治療老年冠心病35例, 遼寧中醫雜誌, 1: 35-36, 1990.
22. 憑西勇: 痰瘀型不孕症治驗, 福建中醫藥, 2: 9, 1989.

23. 謝海洲: 久咳因瘀治驗, 新中醫, 1: 20, 1991.
24. 葉益豐: 從痰瘀論治腦腫瘤驗案, 光明中醫, 3: 28, 1989.
25. 沈萬生: 痰瘀同治療中風, 遼寧中醫雜誌, 7: 18, 1986.
26. 王襲祚, 賈鴻魁: 活血化瘀治療外科病症十七法, 遼寧中醫雜誌, 5: 22-23, 1982.
27. 袁寶庭: “痰瘀同治方”治療心臟病, 北京中醫學院學報, 6: 32, 1987.
28. 劉心德: 張錫純治痰經驗舉要, 江蘇中醫雜誌, 11: 1-2, 1985.
29. 劉春堂, 胡文豪: 高血壓症從痰瘀治, 上海中醫藥雜誌, 3: 22, 1985.
30. 應志華: 化痰祛瘀湯治療腦病, 上海中醫藥雜誌, 5: 31, 1986.
31. 李浩然: 皮膚病從痰論治八法, 雲南中醫雜誌, 3: 19-20, 1985.
32. 張覺人: 從痰瘀論治老年腦血管性痴呆, 新中醫, 7: 50-51, 1991.
33. 張德仁: 溫病治痰十法, 湖北中醫, 2: 53-54, 1985.
34. 鄭國珍: 痰瘀型痺證治驗三則, 福建中醫藥, 5: 52-53, 1989.
35. 程運文: 惡阻治痰四法初探, 遼寧中醫雜誌, 5: 8-9, 1989.
36. 周克振: 周子芳對痰瘀同病的辨治經驗, 江蘇中醫雜誌, 3: 1-2, 1987.
37. 周彩章: 痰瘀舌蹇治驗, 湖南中醫, 6: 31-32, 1985.
38. 蒲永海: 傷科內傷從<痰瘀>論治的體會, 江蘇中醫雜誌, 9: 27, 1985.